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19.5.10(금) 9:30부터 보도가능

開 會 辭

2019. 5. 10 (금) 09:35~09:45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며칠 전 있었던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구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새로운 곳으로 훌쩍 떠나고픈 마음에
왓스레 여권을 들여다보게 되는 때인데,

때마침 우리 펀드에게 '여권(Passport)'이 생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컨퍼런스를 함께 준비해주신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걸음을 해주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각 회원국과
옵저버 국가의
당국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역할 및 성과

자산운용산업은

국민의 자금을 모아 생산적 분야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드림으로써,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이자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자산운용산업은

선진국 대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큰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펀드는 이미 소매투자상품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고,
최근에는 사모펀드·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시장에서의 혁신 속도도 대단히 빠릅니다.

외연적으로도 최근 5년간 수탁고가 162.3%,
회사수는 288.3%, 임직원 수는 156.4% 성장했으며,
이는 여타 업권에 비해 압도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수탁고(조원) : ('13년말) 628 → ('18년말) 1,019 (162.3%)
회사 수(개) : ('13년말) 84 → ('18년말) 243 (289.3%)
임직원 수(명) : ('13년말) 5,259 → ('18년말) 8,223 (156.4%)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시는 자산운용업계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 자산운용산업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의의

최근 금융시장의 큰 변화로는
고령화, 핀테크 산업의 발전 등
다양한 이슈를 꼽을 수 있겠지만,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큰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핵심은
회원국 간에는 매우 간단한 절차를 통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금감원에서 패스포트 펀드로서
등록심사를 받은 한국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화된 등록절차만 거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은 유럽의 펀드시장 및 산업의 발전에
공모펀드 교차판매 제도인 UCITS이 크게 기여한 것처럼,
우리 펀드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입니다.

① 우선 운용사들은 보다 쉽게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의 한정된 투자기반을 넘어서
가능성 있는 해외시장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②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원국의 펀드가 유입됨으로 인해
펀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패스포트 펀드가 유입되고 판매가 확대되면
판매사들의 판매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펀드 인프라산업 또한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유럽 펀드시장의 룩셈부르크처럼
우리나라가 역내에서 주요 펀드 설정국 지위를 획득할 경우,
펀드거래의 거점으로 활용되어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하여
아시아 회원국에 적극 진출하고,

회원국 펀드산업과 제도를 이해하고
해외 자산에 대한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수한 역외 패스포트 펀드와의 경쟁 속에서도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4.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

아시아 펀드 패스पोर्ट의 도입 준비와 더불어,
정부는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일반투자자의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공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과 같이
업계가 불편을 호소하던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운용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1 그룹 1 운용사’ 원칙을 완전 폐지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공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②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와
사모펀드 투자자 수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③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디폴트 옵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국민들이 '좋은 연금상품'을 선택하고
'더 나은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탈도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④ 아울러, 최근 핀테크(Fin-tech)와의 결합이
자산운용산업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간 추진해 온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비롯하여
상품 가입에서 설명, 운용까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핀테크를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⑤ 끝으로,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제약이 되는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외화보유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MMF 등
외화표시 자산운용상품의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산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투자자의 이익이 결국 업계의 이익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데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마무리 말씀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아시아지역 투자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참석하신 분들!
이 좋은 5월의 날씨만큼이나 한국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